

메시아 모티프와 인물의 갈등을 통한 계몽주의 비판 -

파트리크 쥐스킨트 <향수>를 중심으로 -

## Reflective Statement

이번 상호토론은 그르누이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소설 속 그르누이의 인물형상화 분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더불어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주제의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은 마지막 장면 속 그르누이의 죽음의 의미였다. 나는 사람들은 계몽사상을 통해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인간은 원초적 본능인 후각에 휘둘리게 되고 그르누이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환멸을 느꼈기에 그의 최후를 도피성 죽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소설에서는 그르누이와 예수의 삶 사이에 공통점을 통해 메시아적 요소가 드러난다. 그르누이의 죽음을 해방이나 죽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에서 나는 역시 메시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방의 사전적인 의미는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 이지만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는 뜻이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행위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남에게 맞춰져 있는가에서 나타난다. 이를 메시아 모티프와 연결하면, 예수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있었고, 그르누이의 목표는 완벽한 향수를 만드는데 있었다. 그르누이의 삶의 목표는 자신의 존재 인식 그리고 냄새로 가득 채워진 상상의 세계를 현실에 실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산 이타적인 인물 반면 그르누이는 철저히 자신에 맞춰진 이기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그의 죽음을 희생처럼 표현했는데 특히나, 첫 사형 판결이 십자가에 박히는 판결이거나 사형 후 사람들이 그르누이이의 신체를 먹는 장면은 흡사 신도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박힘으로써 희생을 한 예수의 모습과 비슷하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그르누이라는 인물의 형상화에 대한 분석이었다. 나는 혐오스러울만치 부정적으로 묘사된 그르누이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감정에 대한 개념이 늦고 죄의식이 없는 성격적인 결함을 드러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개인적으로는 작가가 그르누이라는 인물을 그만의 허구세계에서 창조주로서의 형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소설 곳곳에서 강조한다. “장 밥티스트”라는 이름은 세례자 요한을

나타냄으로써 그가 메시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반면, ‘그르누이’는 프랑스어로 개구리를 뜻한다. 개구리는 수륙양용이 가능한 동물인데 이는 그르누이가 자신의 상상 속 냄새의 세계에서는 창조주로 살아가지만, 정작 현실 세계는 존재하되 소속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더불어 그르누이는 제삼자가 보기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살인마이지만, 정작 자신은 살인은 냄새를 수집하는 일종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 인물로 형상화 되었다.

마지막 토론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프랑스의 근대화에 대한 비교였다.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전후에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민중봉기를 통해 신분제를 타파하려고 시도했는데 실질적 신분제 폐지를 이끌어 낸 것은 갑오개혁이다. 이는 오랫동안 뿌리깊게 존재했던 유교적 신분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것이 정부 주도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대혁명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 토론에서 모두 동의한 점은 중간계급의 폭발적 팽창과 지지가 근대화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반도에서 일어난 근대화 운동의 성격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부분에서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소설 〈향수〉<sup>1</sup>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로 18세기 계몽주의가 태동하는 프랑스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대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계몽주의란 “이성 즉, ‘자연의 빛을 다방면에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구습을 타파하고자 하는 18세기 주로 프랑스, 독일에서 전개된 사상운동’<sup>2</sup>을 칭한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시민계층 형성이 늦었던 프랑스는 더욱 과격한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을 지지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소설〈향수〉는 중심 인물인 그르누이가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작가는 계몽주의가 확산하는 시기 프랑스를 향수라는 소설을 통해 재현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냄새가 없이 태어난 주인공 그르누이가 자신의 향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과의 대결이다. 작가는 다양한 구원자 모티브를 통해 그르누이라는 인물을 구체화하고 주변인물인 발디니, 에스피나스 후작 그리고 리쉬와 대결하는 대결 구도를 설정한다. 이 때 그르누이와 관련된 모든 주변인물은 그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작가는 신성성이 사라지고 이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18세기의 프랑스를 그르누이로 대변되는 메시아와 다른 주변인물로 대변되는 인간의 대결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신을 부정하고 이성을 추구한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작가의 주제 의식이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통해 어떻게 드러났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 속 그르누이는 계몽주의 비판을 목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도구로, 구원자 적 성격의 인물로 제시된다. 작가는 이를 위해 그르누이의 삶을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나 세례자 요한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우선 그르누이의 삶은 다양한 부분에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세례자 요한의 삶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헤로데 왕이 영아살해를 명하는 위태로웠던 상황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직후 죽음의

<sup>1</sup> 쥐스킨트 파트리크.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Translated by 강 명순, 주식회사 열린책들 , 2016.

<sup>2</sup> 영성적 입장에서 살펴본 서양 철학사, www.lightearth.net/?mid=free0&document\_srl=624338.

위기를 겪을 뻔한 것은 태어나자마자 친모에게 버림받아 죽음의 위기를 겪은 그르누이와 그 탄생부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였던 마리아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며 그르누이는 미혼모인 어머니에게서 “프랑스 왕국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sup>3</sup> 파리의 “식료품 시장”<sup>4</sup>에 태어났다. 더불어 그르누이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장소도 세레자 요한의 설교활동이 시작된 곳과 매우 비슷하다. 그 예로, 세레자 요한이 세레 활동을 시작하기 전 요르단 지역의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그르누이가 오베르뉴 산맥에서 지낸 점과 비슷하다. 덧붙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에 처했듯이 그르누이 또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는다. 결국 그르누이는 사람들에게 의해 뜯기고 먹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메시아적인 요소를 그르누이에게 포함하면서 발디니, 에스피나스 후작, 리시 등 각 인물이 상징하는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문학적 도구로 활용한다. 단순히 어떻게 그르누이와 메시아가 연결되어있는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시대를 대표하는 발디니, 허울뿐인 학문과 과학을 표현하는 에스피나스 후작, 결국 그르누이에게 굴복하게 되는 리시를 작품 내 각 부분에 배치하면서 그르누이와의 갈등구조의 완성도 높이는 동시에 그르누이의 절대적인 힘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였다. ‘향수’에서 메시아적 요소는 단순히 인물의 성향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아닌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계몽주의를 향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관통하는 문학적 장치이다.

발디니는 향수제조 장인으로 향수를 통해 부와 장인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올랐으나 펠레시에와 같은 재능과 유연성은 지니지 못한 평범한 인물로 제시된다. 그는 변하는 사회에서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인물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 그르누이에게 각종 실험 기구의 사용을 알려주거나 향수 제조에 있어 정확한 계량과 수식 등을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을 가진 인물이다. 작가는 이러한 발디니의 시선을 통해 당시의 프랑스를 “모든 분야에서 분주한 개혁의 열풍이”<sup>5</sup> 시작된 “거리낌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고, 실험동물이

<sup>3</sup> 쥐스킨트 파트리크.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Translated by 강 명순, 주식회사 열린책들 , 2016, pp.11.

<sup>4</sup>Ibid., p.11.

<sup>5</sup>Ibid., p.84.

되고, 장사를 하든지 무역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대가들이 되려”<sup>6</sup>하는 시대로 묘사한다. 그가 생각하기엔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자들은 “영터리 문필가”<sup>7</sup>로 보여지고 “카오스가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점차 전체 사회로 확대되어 가고 있”<sup>8</sup>다고 생각했다. 그는 프랑스 사회에 부정적인 것만을 보며 그 관점을 인간과도 접목했는데, “인간의 불행은 자신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 즉 자신의 영역에 더 이상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sup>9</sup>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작가는 발디니라는 인물을 통해 계몽주의가 태동하던 18세기 프랑스에,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신이 믿던 절대적인 진리인 신성이 무너지고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한 계몽주의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변화에 적응한 사람 등 다양한 민중의 모습을 발디니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대하는 민중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가의 의도적 설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그르누이가 떠난 후 맞이하게 된 발디니의 비극적인 죽음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덧없는 “지독한 냄새”<sup>10</sup>라는 표현을 통해 허울뿐인 계몽주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발디니가 계몽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대변하는 인물이라면, 에스피나스 후작과 리쉬는 계몽주의 사회를 대변하는 인물들로 묘사된다. 에스피나스 후작은 계몽주의 사회 속 급진적으로 발전하던 과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발디니와 달리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었다. 하지만, 작가는 그 당시 진보적인 학문이었던 과학의 한계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후작의 과학은 패러디된 형태로 묘사되는데, 황소의 정자를 이용한 “우유꽃”<sup>11</sup>과 “치명적 유동체”<sup>12</sup>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큰 성공을 이루진 못했다. 오히려 그르누이라는 존재가 “치명적 유동체 이론의 살아있는

<sup>6</sup> 쥐스킨트 파트리크.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Translated by 강 명순, 주식회사 열린책들 , 2016, pp.84.

<sup>7</sup> Ibid., p.86.

<sup>8</sup> Ibid., p.86.

<sup>9</sup> Ibid., p.85.

<sup>10</sup> Ibid., p.163.

<sup>11</sup> Ibid., p.204.

<sup>12</sup> Ibid., p.204.

증거”<sup>13</sup>로 살롱에 선보여질 만큼 초기 계몽주의 시대의 과학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상상력에 기초하고 논리적 연구체계를 갖추지 못한 학문이었다. 에스피나스 후작의 우스꽝스러운 과학적 이론은 그르누이가 사용한 향수의 효과 덕에 대중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이는 논리성을 내세운 과학이라는 학문이 결국 향에 의해 조종당하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당시 과학의 한계점을 풍자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에스피나스 후작의 강연이 프랑스 남부의 가장 중요한 대학도시 몽펠리에에서 환호받는 모습은 새로운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 이전 세기에 유행하던 민간요법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대치되며 작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피레네산맥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바람”<sup>14</sup> 속 사라진 후작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에스피나스 후작이 스스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믿었던 그의 학문과 이론의 허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르누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위대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던 “치명적 유동체”<sup>15</sup>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후작의 확실한 증거로 사용되는 과학의 한계점을 알아챈 모습과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본인 스스로가 증거가 되어야 했던 에스피나스 후작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그 당시 과학의 한계를 보여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은 전설로 남게 되고 그의 추종자가 생겨난다. 작가는 에스피나스 후작이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학문과 같은 계몽주의의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인 측면에서 계몽이 사람들을 주술과 마술에서 해방했지만, 오히려 계몽 자체가 다시 신격화된 의도적인 설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리쉬는 교역과 장사로 부유해진 신흥 귀족이며, 딸의 결혼을 통해 “가문을 일으켜 후손들에게 최고의 사회적 명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싶”<sup>16</sup>은 신분 상승의 야망을 품은 사람이다. 또한 “비록 후각이 아니라 시각적 범주이긴 했지만 (중략)

<sup>13</sup> 쥐스킨트 파트리크.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Translated by 강 명순, 주식회사 열린책들 , 2016, pp.206.

<sup>14</sup> Ibid., p.234.

<sup>15</sup> Ibid., p.204.

<sup>16</sup> Ibid., p.287.

진실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sup>17</sup> 던 그는 그라스에서 유일하게 그르누이의 정체와 범죄의도를 파악한 인물로서 “계몽주의적 사고방식”<sup>18</sup> 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와 그르누이는 소설 속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최종의 도구로서 로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언급하는 “계몽의 도구인 추상은 자연 속에서 있는 것을 반복케하는 것”<sup>19</sup> 즉,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리쉬가 그르누이의 살인 체계를 이해하는 부분도 두 인물 모두 로르를 향한 같은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로르는 바로 그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맨 마지막 마감재가 아닐까?”<sup>20</sup>라는 질문은 결과적으로 리쉬와 그르누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으로, 로르는 두 인물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핵심이었다. 그러나 리시가 그르누이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딸을 목계 한 여관에서 이미 그르누이를 파악했던 리시도 향수의 힘에 이성을 잃고 결국 로르가 살해되면서 그에게 굴복한다. 마치 그르누이를 간파한 리시를 조롱하듯 이뤄낸 로르의 죽음은 작가가 전하고자 한 것은 아무리신의 존재인 그르누이에대한 파악이 된 리시도 결국 자신보다 한 발 더 앞선 강한 존재였던 그르누이에게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허약한 계몽주의자에 대한 조롱이자 패러디이다.

이처럼 작가는 중심인물인 그르누이와 주변인물들과의 대결을 통해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은유적 시선으로 드러낸다. 그르누이는 작가의 이러한 시대의식을 보여주는 매개체로 역사의 창조자이며 동시에 파괴자라는 양면성을 지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메시아로 묘사된 그르누이가 지니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 이러한 한계를 도드라지게 한다는 점이다. 메시아 포티프를 통해 형상화된 그르누이는 메시아와는 달리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삶을 지향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이기적인 삶을 지향한 그르누이의 삶의 지향점을 통해 드러난다. 요한복음 3장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고 이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역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중략)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sup>17</sup> 쥐스킨트 파트리크.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Translated by 강 명순, 주식회사 열린책들 , 2016, pp.292.

<sup>18</sup> Ibid., p.292.

<sup>19</sup> “계몽의 변증법.” 네이버 블로그 | 어떤 여행의 기록,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pple488&logNo=220643027602&proxyReferer=https://www.google.com/.

<sup>20</sup> 쥐스킨트 파트리크.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Translated by 강 명순, 주식회사 열린책들 , 2016, pp.292.

하심”이다.<sup>21</sup>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인간의 구원에 맞춰져 있다면, 그르누이는 향기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개인적인 성공 성취와 자아실현에 집착했다. 두 인물의 궁극적 지향점은 두 인물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완성이 되는데, 자신의 희생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달리, 이기적 욕망을 끝내 실현하지 못한 자의 자살이 그것이다. 냄새의 부재로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못했던 모순적 인물인 그르누이가 궁극의 향수를 만들었으나 끝내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작가의 비판적 시대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의 대결 그리고 메시아라는 성경적 모티프를 통해 드러낸다.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민중을 대변하는 발디니, 계몽주의 사회의 허상을 대변하는 에스피나스 후작과 변화하는 사회에 발빠르게 편승했으나 결국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당시의 인물을 대변하는 리쉬가 바로 이들이다. 결국 세 인물 모두 그르누이와의 대결에서 굴복하고 각각 죽음, 실종과 딸을 죽인 살인자를 신처럼 숭배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신을 부정하고 인간중심의 이성을 추구한 계몽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자 한 작가의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이 48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게 2,000만권 이상 팔려 20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이 작품이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의미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길 바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그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통해 독자들의 삶의 태도 변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문학으로서의 이 작품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가 될 것이다.

<sup>21</sup> 생명의 삶, qt.swim.org/user\_utf/life/user\_print\_web.php?edit\_all=2015-01-14.

## 참고문헌

[단행본] 쥐스킨트 파트리크.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Translated by 강 명순,  
주식회사 열린책들 , 2016

[온라인블로그]“계몽의 변증법.” 네이버 블로그 | 어떤 여행의 기록,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pple488&logNo=220643027602&proxyReferer=https://www.google.com/](https://www.google.com/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pple488&logNo=220643027602&proxyReferer=https://www.google.com/).

[온라인게시판]생명의 삶,  
qt.swim.org/user\_utf/life/user\_print\_web.php?edit\_all=2015-01-14.